

# 龍仁文化

1986. 6. 30

第 7 號



龍仁文化院

# 龍仁文化

1986. 6. 30  
第 7 號



龍仁文化院

## 군 민 현 장

우리 용인군은 산자수명하고 풍요한 고장으로 힘찬 전진의 기상과 참신한 기풍을 조성하여 비약적으로 무궁하게 발전하는 군입니다.

유서깊고 그윽한 고적과 동방의 정기어린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충혈사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슬기로운 예지와 고매한 덕을 쌓아 튼튼한 몸으로 우리 고장을 계발하고 가꾸어 나감이 우리들 군민의 자랑입니다.

용인의 수려한 자연속에 평화롭고 오붓하게 잘 사는 복지 사회를 우리들의 손으로 이룩해 가기 위하여 마련한 이 현장을 다 함께 한결같이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서로 존경하고 협동하는 군민이 됩시다.
2. 화목한 가정, 정다운 마을, 명랑한 환경을 이룩해 갑시다.
3. 온 군민이 한 가족처럼 온 군민이 한 집안처럼 믿음있게 살아 갑시다.
4. 자기들의 소질과 능률을 계발하는 한편 알차게, 보람찬 내일을 위해 전진합시다.

# 차 례

머릿말 .....	문화원장 김정근 .....	5
용인 소년소녀에게 .....	박상돈 .....	6
<b>용구문단</b> <詩> 겨울바다 .....	林峻奎 .....	13
아카시아 .....	李佶浩 .....	14
모교, 여름스케치 .....	丁秀子 .....	15
원점인생 .....	김학민 .....	16
無名勇士에게 .....	최희면 .....	17
五月 어느날 .....	박상근 .....	18
김량천(金良川) .....	장명국 .....	19
第1回 龍丘文化祭를 盛況里에 開催 .....		20
第1回 龍丘文化祭 이모저모 .....		23
내가 본 龍丘文化祭 .....	노용득 .....	29
<b>꽃 꽃 이</b> 유월의 신부 .....	오민근 .....	31
소녀의 꿈 .....	정은영 .....	32
<b>학교순례</b> 문정중학교 .....		33
대한유도대학 .....		35
<b>特 輯</b> 言論界의 先覺者 石農 柳瑾 .....	朴鏞益 .....	38
<b>민속놀이</b> 地神밧기 .....	河周成 .....	43
<b>옛 문헌속의 용인(5)</b> 남귀기행(南歸記行) .....	洪順錫 .....	49
<b>용인금석유문자료(2)</b> 사은정중수기(四隱亭重修書) .....	洪順錫 .....	51
<b>지명유래</b> 「學日」外 2 .....	정양화 .....	55
<b>사발통문</b> .....	편집실 .....	57
편집후기 .....		64

# 머릿말

용인문화원장 김 정 근

산너머 산이요 강건너 강이라 첩첩이 고되고 어려운 길만이 가로 놓여 있으나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요 건너야 할 강이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뚫는다. 넘다가 지쳐 넘지 못하면 돌아서 비켜가고 건너다 물이 깊어 건너지 못하면 얕은 여울을 찾아서 건너야겠습니다.

제주도 쓸만한 경비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남을 시키는 힘은 더 더욱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라는 명예를 걸머지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 체 외로이 걸어야 했습니다. 부등켜 안어 주리라 기대했던 분들 중에서 냉정하게 외면한 체 스쳐가는 분들도 있어 꽤 실망한 때도 있었읍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일으켜 주며 등을 두드려 주어 다시 용기를 얻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며 많은 용구문화지 독자로부터 기다림의 호소를 들을 때에는 다시 힘을 얻곤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며 그렇다고 여기서 생계비를 얻는 것도 아닌데 시간과 정력과 물자를 들여가면서 하는 문화사업의 추진은 시간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5만 용인군민에게 꿈과 희망과 기쁨을 주며 화합, 단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용인군민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며 사회교육의 한 모퉁이를 맡아 보자는 우리의 조그마한 성의가 서려 있습니다.

제 1회 용구문화제를 마치고 숨돌릴 겨를도 없이 용구문화 제 7호를 펴내느라 무척 바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원의 임직원, 자문위원, 문예진흥위원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용구문화 제 7호는 예정대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용구문화가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잘못이 있으면 채찍질 해 주시는 관심과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의 소년소녀들에게

박 상 돈

## 1

해 저무는 오월의 어스름길 어딘가에서 고성방가가 들려온다.

고함치듯. 다투는듯.

길 건너 음식점을 바라보니 가방을 들고 우루루 몰려 나오는 한 떼의 젊은 이들.

이윽고 너댓 명씩 어깨동무를 하고는 소리를 높여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며 비틀걸음으로 거리를 휩쓸어 간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길을 비켜서는 행인들의 얼굴이 결코 밝지 못하다.

그들의 차림으로 보아 학생이 틀림 없으리라.

지난 사월 초.

모음식점에서 송별식이 있어 직원들과 자리를 함께 했었다.

그 때도 무려 스므 명은 뒹직한 학생들이 무슨 단합대회를 하는지 음식점을 완전히 장악(?)한 채 소란을 피웠더랬다.

떠나갈 듯 합창이 끝나면 입을 모아 구호를 외치고 술잔을 높이 들어 건배했다.

몇몇 사람들이 주인에게 항의했으나 주의를 시켜도 막무가내라며 주인 역시 속수무책이었다.

혀를 차던 손님들은 이게 상책이라는 양 서둘러 음식을 들고는 자리를 뒀다.

아 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젊음이란, 누구에게나 부끄럼타지 않는 젊음의 패기란 얼마나 부러운 것인가?

그러나 그네들의 분방한 자유가 그토록 무분별해도 좋은 것인지는 그네들에게 물어 보아야 할 일이다.

타인에게 불쾌한 불안감을 주는 젊은이들의 그 패기와 자유가 이 사회에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를.

그리고 어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젊은이다운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 줌에 부족하거나 소홀한 점이 없었나

돌이켜 보아야 마땅하리라.

## 2

오월은 청소년의 달이다.

꼭 청소년의 달인 오월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사회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젊은이들의 성장과정을 한번 쫓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네들의 문제에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그네들에게 무리한 요구나 기대의 짐을 지워주지는 않았는지, 또는 그네들의 성격 형성과정이나 인격도야에 적당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두루 반성해 보고 시정해 나가야 한다.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타인의 의무를 묻는 것은 친부당 만부당한 일.

그래야만 땀땀한 기성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젊은이들의 과오를 타이르고 선도해 나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 3

어린 시절이 아직 어두움이 채 가지지 않은 미명의 새벽이라면 사춘기는 붉은 태양이 찬란하게 솟아 오르는 아침이라 할 것이다.

이 땅 위에 생동하는 만물이 축복을 담고, 퍼지는 햇살 아래 희망을 노래하며, 걸혀가는 안개 사이로 새들의 찬미가 가득한 아침.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엔 이슬 머금은 모든 것이 맑고 싱그러워 무엇인가 기대되듯 사춘기는 밝고 아름다운 꿈으로 공연히 가슴 설레어지는 시절이기도 하다.

앞에 가리웠던 무지의 회색 베일이 벗겨지며 눈 떠가는 理性은 어떤 것이든 동경의 대상으로 보여지고, 그 동경의 대상이라면 무엇이든 다 되고 싶은 욕망을 심어준다.

그렇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동반한 그 욕망은 기성인들의 것처럼 조금도 속되거나 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고난과 역경을 겪기 이전에 가지는 막연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추함은 자기가 마음 먹었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흔히 드러난다.

일의 성패에 집착한 나머지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는 비열한 수단이나 불의의 방법을 서슴치 않고 강행하는 수도 있다.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과 삶에 환멸을 주는 것이 그러한 단면들이다.

소년과 소녀들은 큰 좌절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고, 그늘진 면을 미처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그 바램이 밝고 생기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순수한 소망도 학교생활의 숨막히는 경쟁속에서 차츰 퇴색되어 비뚤어진 성격의 난폭한 학생이 생겨나는 수도 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네들에게 무작정 성적이 우수해야 좋고 싸움이 나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보다 어떠한 것이 올바른 경쟁이요 용기이며 떳떳한 패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하찮은 일에 주먹을 휘두르는 만용도 보기 흉하지만 진정 나서야 할 자리에 꿈무늬를 빼는 나약함은 보논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자신이 비록 강하지 못하여 패배의 굴욕을 당할 지라도 만인이 공감할 불의에 분개하여 과감히 희생을 감수하는 용기란 얼마나 숭고하고 가슴 후련한 감동을 주는 것인가?

자기의 모든 실력과 자기의 모든 기량을 다 발휘하였음에도 상대를 이기지 못했을 때 그 승패를 인정하고, 상대를 헐뜯고 욕하기는 커녕 승자에게 아낌없이 갈채를 보내주는 패자의 여유와 의연함은 과연 떳떳하고 멋지지 않겠는가?

그러한 용기를 가진 젊은이는 정의롭고, 정의로운 젊은이가 많은 사회라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불의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네들의 감성은 예리한 칼처럼 민감해서 작은 아픔에 깊이 상처입고 소박한 아름다움에 쉽게 이끌리기도 하며 항상 날카롭게 작용한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감수성은 용기와 희망을 지향한 세계보다는 허무와 비애쪽으로 더 잘 발달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자신을 슬픈 운명의 존재로 단정짓고 떨어지는 한 잎 낙엽에서 한 없는 허무와 비애를 읽으며, 문득 현실에서의 도피와 죽음을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공경에 놓여지고 주위로부터 외면을 당했을 때 스스로 비관하며 난폭해지거나 염세주의적으로 물드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이리라.

허지만 그들에게 소외감을 주지 않고 따뜻한 배려와 선도를 베푼다면 건전한 성장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돋움 할 것이다.

특히 그네들은 갑작스레 변모하는 몸과 마음의 발육에 따라 정에 목말라 하며, 그 갈등은 친구를 찾게 하고 이성을 그리게도 한다.



서로가 공감하는 세계에서 대화를 통하여 나누어지는 우정은 새로운 인격 형성의 기틀이다.

한편으로 우정에 취하면서 부터 싹트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그네들내부 깊숙이 선망하는 대상을 선정해 놓고 그를 찾아 설레이는 마음으로 언제나 초롱한 시선을 반짝인다.

그들은 그 미지의 사람이 언덕 저편에서 바람처럼 홀연히 나타나 아름다운 사랑이 엮어 지기를 간절히 꿈 꾸는 것일까?

이따금 그 멋진 사람이 우연히 마주쳐 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긴 언덕길이나 코스모스 늘어진 오솔길을 무작정 걷고 싶게 해 주는 것일 게다.

그러나 그 소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그네들의 바람이 상상적이고 지운한 것이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더러는 늦어진 밤 길. 이 곳 저 곳을 방황하기도 하고 더러는 능금빛으로 번져가는 노을에 취해 기다림의 시를 배우기도 한다.

그러할 때 異性과의 교제를 닦하고 배움을 강요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고 건전한 사랑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편이 더 현명한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돌이켜 보건대 그맘 때에 지냈던 그 갈망이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애뜻한 그리움이었던가?

한때나마 그러한 연분홍빛 시절을 지냈었기에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좀더 오래 간직하게 되고 고뇌로운 생활의 이면에서 가슴을 울렁이며 감미로운 추억을 살며시 펼쳐 볼 수 있는게 아닌가?

처음으로 사랑에 눈 뜨고, 누구에게서인가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감지했을 때의 두근거림.

그리고 하늘도 땅도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새삼스레 선명히 빛나면서 새로운 의미에 가득차 보이는 그 황홀함.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무어라 형언하지 못할 만큼 신비로운 또 하나의 삶을 맛본 행복한 사람이며 비록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랑의 고뇌가 안겨주는 값진 추억을 보석처럼 간직한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러한 눈부신 아픔의 세월을 인고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과 슬픔이 어떠한 것인지를 앎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며 위로할 줄 아는 깊이를 지니게 된다.

우리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하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도 할 이 사랑이란 길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지 못한 채 편견과 걱정으로 사춘



기 시절을 암울하게 만드는 그릇된 애정을 하루 빨리 시정할 기우가 아닐까?  
 인간에게는 애석하게도 자기가 지녔던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서 귀  
 중함을 깨닫는 어리석음이 있다.

물이 충족할 때에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다가도 가뭄이 닥쳐서야 그 혜택을  
 절감하듯 인간의 일생중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지나고 있는 세대들은 그  
 위치의 중요성을 어른과 같이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성인들의 세계가 그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멋진 것만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그네들은 역시 그네들 나름대로의 꿈을 키우며 그네들  
 다음게 성장해야 하는 필요성을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4

꽃은 피어서 향기를 풍겨줄 때보다 피어날 짧은 시간을 위해 한껏 꽃망울  
 을 부풀려 가는 착한 의지의 모습이 더 아름다우니, 꽃처럼 그윽한 사랑의  
 향기를 머금고 최대의 황금기를 거치고 있는 행운아들이여!

그대들의 피어오르는 젊음을 아낌없이 밝게 노래하라.

혹보석 같은 눈매를 이지에 빛내고 귀로는 값진 진리의 말을 들으며 의문  
 스러운 모든 것을 입으로 물으라.

보다 높고 깊게 보다 멀리 넓은 것을 생각하며 언제나 부지런히 활동하라.

꿈이나 소망없이 무계획한 삶은 죽은자의 생과 같은 것.

미래의 산봉우리엔 오색 찬란한 무지개를 띄워야 한다.

가슴 속에 그대들이 지닐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품고 이 사  
 회에서 조금씩 실망하며 좌절을 넘어서라.

실망하지 않고 어찌 새로운 발전을 추구할 수 있으며, 좌절을 넘어서지 못  
 하면 어찌 큰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인생이란 계곡이나 산과 같은 보이지 않는 굴곡을 거쳐 이어지는 것이고 그  
 러한 과정의 연속으로 계곡이 깊을수록 솟아오른 산 또한 높듯 풍부하게 성  
 장하는 것이다.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손에 잡힐듯 하던 무지개가 다시 건너편 산으로  
 달아나더라도 결코 체념하지는 말라.

용기를 상실함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헛되이 사라짐을 의미  
 함이요, 중요한 것은 그 무지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잡기까지 마음속에 가  
 지는 강한 의식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든 뜻하는 바를 현실로 다 이루었을 때는 그 순간부

터 기쁨과 만족이란 조금씩 부셔져 이윽고 공허하게 그림자만 남는 것이 아니더냐?

가능한 대로 아주 크나큰 그대들 최대한의 노력에 따라 꼭 한 번만 이루어 낼 수 있는 이상을 지녀라.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어떠한 목적과 의미를 내포할 때 비로서 아름답고 가치있게 느껴지는 것이다.

저 역사의 흐름속에 묻히어 간 열사나 애국자들이 자신의 안위와 죽음조차 불사한 행위일지라도 충정의 높은 뜻을 제한다면 한낱 헛된 천치의 장난이 듯이 그대들의 배움과 성장도 어떤 목표가 선정되지 않았을 때는 무가치해 지리라.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정도를 바로 걷는 슬기가 필요하다.

슬기란 사리를 옳고 밝게 다스리는 재능이요 지혜며, 사물의 격치를 참되게 이해하고 행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지혜와 지식은 다르나 해박한 지식은 슬기를 낳고, 그 지혜는 앎을 추구하게 하는 연관성이 있으므로 그대들은 열심히 배워야 한다.

배움이란 학문의 탐구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인격도야에 그 목적이 있는 것. 중후한 인격의 소유자는 위협과 유혹에 눈 돌리지 않고 대로를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기개와 어짐이 있다.

졸렬한 방법과 비열한 술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설사 그 사람이 뜻하는 바를 이룰지라도 부수적으로 따르는 인과에 괴로움을 느끼고 번민하게 되어 불안정한 생활은 파멸을 부르기도 한다.

용인의 소년 소녀들이여!

그대들은 부디 몸과 마음도 튼튼하게 자라거라.

그리고 그대들이 어엿한 젊음으로 성장하였을 때는 그대들의 젊음이 가정에, 사회에, 국가에 불안과 어두움보다 희망과 믿음을 더 많이 심어 줄 수 있도록 의연함이 넘쳐야 한다.

오, 오 기성인들의 일원으로 간절히 기원하노니 우리의 소년 소녀들에게 건강과 발전이 함께하기를, 아울러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 5

어린 시절

우리가 가지고 놀던 활과 화살

그 시위를 당기면 당길수록  
 화살은 더 높이 더 멀리 날았었지  
 그대들  
 스스로 활과 화살이 되게  
 지금의 세월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시위를 당기는 순간 순간이어야 하네  
 뜻을 가지고 의지의 씨앗을 뿌리게나  
 흙이 만물의 대지요 터전이라면  
 사회는 인간의 땅.  
 흙은 항상 거뭇이 없지  
 믿고 일구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듯  
 우리의 땅도 꼭 그럴 걸세  
 풀이 자라는 한 해동안  
 어찌 맑은 날만 지속될 수 있겠는가?  
 폭풍우에 꺾이지 않는 풀에게만  
 가을의 메마름 속에  
 새 생명이 간직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도 또한 그럴 걸세  
 더 큰 보람을 위해  
 오늘의 고통은 이겨야 하리  
 참고 가꾸어야 하리.





## 겨울 바다

林 峻 奎

이끌리듯 겨울바다에 섰어.  
정말인지 남모르게 겨울바다에 섰지.  
가장 낮은 바람과  
그 뒤를 잇닿는 설운 바람이  
낮은 소리로 데불고  
얼굴이 마구 뒹굴어.  
겨울바다에 나무들이 쓰러지고 있어.  
숨돌릴 틈도 없이 끝이 없이  
나무들이 쓰러지고 있어.  
이름만 불러대고 있어  
도처에 깔린 허망  
얼어죽은 쥐새끼와 새 한마리  
그리고 얼어붙은 입김  
비릿한 갯내음  
겨울바다엔 눈발이 날리우고 있어  
좀더 낮은 곳으로 내려앉지 못하고 눈발은  
흔들리며 떠다니고만 있었어  
이때 겨울바다엔 가득참 속에 알 수 없는 거리가 있었지.  
원통 무너짐의 연속으로  
고깃배가  
매어놓은 고깃배가 또한  
차갑게 차갑게 가라 앉았지.





## 아 카 시 아

李 佶 浩

그대의 생일

초여름인지 이제야 알았소.

새색시의 볼우물만큼 수줍고

白雪처럼 눈부시며

그대 목소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어

우리(相)란 것의 울타리를 만들어

1세기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나의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동생들

이웃들

한자리에 모여 초여름을 노래하며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 모교, 여름 스케치

丁 秀 子

깃발 홀로 나부끼는  
나지막한 목조 校舎

있었던 두어 소절  
無色의 낡은 건반을

아, 문득  
노을 적시며  
짚어오는  
풍금 소리

和音を 행귀 드는  
미류나무 잎새마다

일어서는 후렴들  
푸르른 발자욱들

고무신  
홀홀 벗어 놓고  
어느 먼 길  
가는가.



## 원 점 인 생

김 학 민

으-양 첫 멜로디의 고귀함과 함께  
인생을 낳게 하였다.

아무런 욕심도, 거짓도, 미움도 가지지 않은  
무(無) 그것 하나였다.

무가 유를 창조해낸 순간  
생의 고통과 고락으로 뒤 바뀌어  
갈림길의 인생을 만들어 냈다.

육신의 어두움과 밝음의 모퉁이에 서서  
선과 악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미련함을 만들어 냈다.

부-함 만을 몹시 갈구하는 인생살이에 파묻혀  
첫 멜로디의 고귀함을 잊은 채  
망각의 일초일초만을 되풀이 했다.

주-린 인생이 어떠한에 눈을 뜬 순간  
섭리의 감사함과 보이는 것이 환함을  
송두리째 얻었다.

결국 돌아 돌아 지친 인생 살이는  
오로지 하-얌으로  
오로지 없-음으로

다시 돌아가리





## 無名勇士에게

최 희 면

이름모를 魂魄이시여  
이제 나래를 접으소서

그 무덤던 季節  
불타는 砲煙에  
님은 소스라쳐  
소스라쳐  
마주잡은 두 손은  
겨레의 防波堤 되어  
國土는 鮮血로 짓어가고  
멍든 상처  
찢기운 肉體  
아픈줄 몰랐는데  
잘라진 허리  
잘라진 허리

이름모를 魂魄이시여  
이제 나래를 편히 접으소서

여기 사랑스런 兄弟  
아들 딸들이  
偉大한 祖國  
偉大한 겨레되어  
님의 큰뜻  
그 높은 氣魄  
펼쳐 나아가는데  
언젠가 雄壯한 氣像  
휘날리리라.

오늘 님위해 墨香 사르노니  
이제 나래접고 고이 잠드소서  
그리고  
님이 밟았던 흙  
마셨던 물  
다시밟고  
마시리니

아 / 自由萬歲  
大韓民國 萬萬歲 /



## 五月 어느 날

박 상 돈

지금은  
빠꾸기며  
산 새 울음 한가로운  
五月의 한 낮

화운사  
우거진 잡곡 그늘 밑  
불어오는 바람결에  
퇴색한 歲月이 지고 있어

향기 벗어버린  
아카시아 꽃 잎  
빈 손 되어  
흘날려 돌아가는 데

나래 접어두고  
고요 속에 머물러  
無心 어린 눈  
눈 빛 가득히

삶이 꽃 앞인듯  
꽃 앞이 마음인듯  
꽃 앞도 나도  
덧 없이  
덧 없이 저버리고 있어



시

## 김량천(金良川)

장 명 국

(一)

물여도 물이라고  
불리지 못하는 물.

욕심은 넘쳐  
오염.  
白內障을 드리우고,

맑은 빛 찾아 꿈틀거린  
더듬이的 흐름아.

(二)

등을 밀고 있는  
오늘 이 곳 바람에야,

소스라쳐 인  
풀잎, 비닐조각 같은

찢어진 가슴너울 달래  
깊고 있는 여울.

(三)

낮은 곳 향해 가는  
끝 모를 외길에선

사랑 앎 못 살아  
맨살로 땅을 쓸고,

쏟는 피  
굳이 검었던  
日常事의 殉教어.

# 第 1 回 龍丘文化祭를 盛況裡에 開催

## 1. 目的

鄉土文化 暢達의 일환으로 固有民俗날을 期하여 傳統民俗 文化祭 行事를 通하여 愛鄉心 고취와 郡民의 和合 분위기를 造成하여 傳統風俗놀이를 再現 傳承시켜 鄉土愛를 돈독코져 함.

## 2. 方針

- 1) 龍仁民俗文化를 活性化시켜 鄉土文化의 遺産을 발굴 傳承
- 2) 民俗文化行事를 通하여 和合前進하는 郡民像 定立
- 3) 全郡民이 同參하여 創造, 自助, 協同의 氣風造成
- 4) 郡民總和를 다지는 文化祝祭

## 3. 一般事項

- 1) 大會名 : 第 1 回 龍丘文化祭
- 2) 日時 : 1986. 6. 14 09:00
- 3) 場所 :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 (광장)
- 4) 主催 : 龍仁文化院
- 5) 後援 : 龍仁郡廳 龍仁警察署 龍仁教育廳 農協龍仁郡支部 京仁日報

## 4. 前夜祭行事

- 1) 市街提燈行列 및 民俗무용 (龍仁女子高等學校)
- 2) 朴相玉國樂研究院 特別贊助出演

## 5. 文化行事

- 1) 龍仁 7 偉人의 일 示顯 가장行列 (龍仁商業高等學校 500 名)
- 2) 취타대 特別演奏 (慕賢中學校 54 名)
- 3) 韓國民俗村 農樂特別 공연

## 6. 民俗行事

- 1) 農樂競演大會 (各面對抗)

2) 씨름大會(龍仁장사 선발)

3) 그네大會(婦女子)

## 7. 其他行事

1) 地方土俗物 판매장개설

2) 鄉土飲食 판매

## 8. 施賞

部門別 入賞內譯

龍仁文化賞      龍仁商業高等學校 教師 정양화

綜合優勝      器興邑

綜合準優勝      外四面

綜合3位(共同)      龍仁邑 南四面

### <農樂部門>

1 位      外四面

2 位      器興邑

3 位      龍仁邑

特別賞      二東面

### <씨름部門>

1 位      송경용      기흥읍(용인장사)

2 位      구상모      남사면

3 位      이태원      남사면

4 位      이상현      포곡면

5 位      차진복      의사면

6 位      원중호      이동면

### <그네部門>

1 位      정기복      원삼면

2 位      전선옥      용인읍

3 位      김남숙      용인읍

〈入 場 賞〉

- 1 位    내 사 면  
 2 位    포 곡 면  
 3 位    이 동 면

第 1 回 龍丘文化祭에 協助하여 주신 분들

〈無順〉

성명 및 단체명	성명 및 단체명	성명 및 단체명	성명 및 단체명
농협용인군지부	홍익문화사 강성준	송우석	모현면 변해봉
관내 단위농협일동	동아서점 송재권	경방 공장장	수지면 이영구
축협군지부	남용회	노인회 라복용	기흥정화위원장 김시래
혜원장	군소방대	조관중	기흥읍 구자역
제일약품	이일녕	용흥농협 김용기	용인군 한의사회
최춘성	산림조합 신효철	요식업조합장 박락환	신영광고사 강기형
이병운	구성면 우일축산	민속갈비 윤진섭	아동농협조합장 박봉재
평동협의회	용인군약사회	수지면장 이수길	박필동
남사면 홍승혁	용인여중 양승대	원삼면장 임이택	외사면 홍시표
국회의원 조종익	김건중	유선방송 심재선	용내농협김량분소 이기열
용인신용협동조합	백암 김기홍	민속촌 맹인재	장석진
외사면 김명환	전신전화국 조철현	외사면 김금복	의료보험조합 김학규
모현중 이민구	국회의원 정동성	채춘묵	명진택시 조명길
교육청 박제현	양희석	수지면 이원보	기흥읍장 이한구
임병두	김학노	시전사 금병성	이학린
비비에스 홍재구	이윤수	역북리 한영식	강명운
마평노인회	기흥읍(신갈)최원용	한일석재 정중근	김종학
남기성	제일은행 신현태	원삼면 설상헌	오민근(꽃꽃이)
수지면 정하승	외사면장 김달원	용인군의사회 박충근	김익래(문화원기)
차상수	태성중고교 이경환	포곡면 이성재	김윤항(VTR촬영)
심현옥	정운영	유강회	
한의사회	국민은행 정창기	수원화서동 71-4 정찬섭	

# 제1 회 용구문화제 이모저모

〈전야제 행사〉



용인여고 민속무용



용인여고 제등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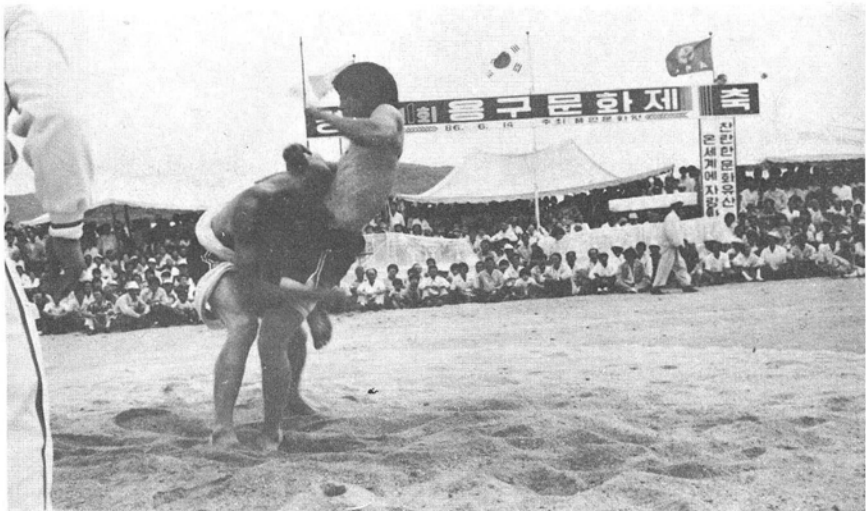
박상옥 국악원 국악연주







농악경연 광경



씨름경기 광경



그네뛰기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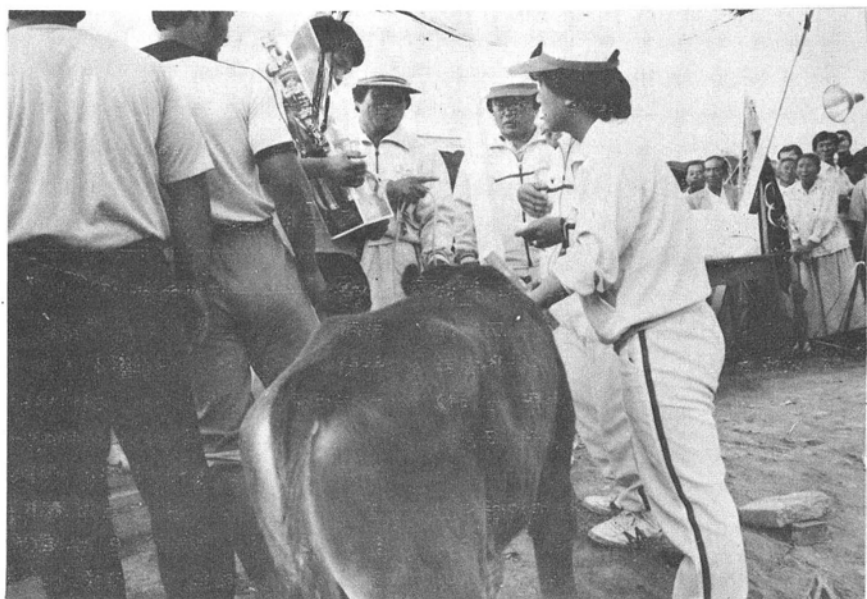
모현중학교 취타대 연주



타작놀이 재현



용구문화제 전경



용인장사에게 황우시상 광경

# 내가 본 龍丘文化祭

노 용 득

내고향의 향토문화 창달과 전통민속놀이를 재현, 전승하는 “제 1회 용구문화제”가 우리의 고유민속의 날인 단오절을 즈음하여 용인에서는 처음으로 용인문화원에서 모든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음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김정근 문화원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금번 “제 1회 용구문화제” 행사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보고 느낀점을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용구문화제 전야제 행사로는 용인여자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제등행렬 및 민속무용과 특히 박상욱 국악연구원(용인군 의사면 출신)의 국악연주회는 전야제 행사에 참석한 모든 군민에게 흥분을 돋구어 주는데 흡족하였다고 봅니다.

6월 14일 용구문화제 잔치날!

용인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밴드로 막을 올려 용인문화상 시상, 어머니 합창단의 “애향가 제창과 그밖의 합창”, 한국민속촌 농악대 시범공연, 모현중학교 학생들의 취타대 시연을 비롯하여 용인상업고등학교 500여 학생들의 용인의 7위인의 얼굴을 시현하는 멋드러지고 코믹선한 가장행렬을 통하여 용구문화제의 절정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용인 7위인의 가장행렬 내용을 보면

“포은 정몽주 선생님의 충혈정신, 정암 조광조 선생님의 유교사상에 기인한 민훈정신, 추담 오달재 선생님의 애국정신, 죽창 이시직 선생님의 충절정신, 반계 유형원 선생님의 애국정신, 충정공 민영환 선생님의 충절정신, 국은 이한응 열사의 애국 희생정신” 등이 있었습니다.

7위인의 얼굴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이 길이 이어나갈 교훈이었습니다.

부디 우리 용인 7위인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 조상들의 비극이었고 고난이었던 그 사실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겠



입니다.

나로서는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 고장(용인)에 산다는 것에 크  
나큰 자부심도 갖게되는 계기였다고나 할까요?

한편, 이동면 요봉리 주민들의 “보리타작, 마당놀이” 같은 전통민속놀이  
를 재현, 전승하여 왔다는 것에 “이것은 용인군민의 자랑이며 특성”이라 생  
각했으며, 우리가 가벼히 넘길수 없는 고향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껴보기도 합  
니다.

각읍, 면 농악대 소리가 대회장을 메우자 어깨춤이 저절로 생겼고, 읍, 면  
에서 선발된 아낙네들의 그네뛰기 대행진을 통하여 옛풍습이 되살아남을 몸  
으로 느꼈답니다.

또한 용인장사 씨름대회를 보면서 그 옛날 7월 백중날 농촌의 젊은이들의  
한판씨름에 황소 끌고가던 기백이 오늘의 용구문화제 씨름판에 용인 천하장  
사 “송경용”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구석구석, 향토음식, 동동주 한잔에 빈대떡 안주로 석양술에 만취되어 경  
로회 농악놀이에 흥이겨워 춤을추는 노인들을 보면 이번문화제에 함께한 모  
든 군민의 축제가 아니라고 그 어느 누가 말하겠습니까? 오늘의 용구문화  
제의 한마당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용인군민의 화합과 나라 사랑의 정신고취  
및 민속놀이와 향토음식의 발굴로 우리조상의 일을 이어받아 오늘의 용구문  
화제 행사로 끝내지 말고, 용인군민의 한마당 민속놀이를 확대 계승하여 하  
루를 즐기는 용인군민의 큰 잔치가 되도록 온군민이 다같이 참여하는 계기의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도 이젠 “용구문화제” 라는 커다란 행사를 갖게되었습니다.

내년의 제 2회 대회가 더욱 성대히 치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모두 성  
원하여며 기대해 봅니다.

## 유월의 신부

영지희 꽃꽂이 용인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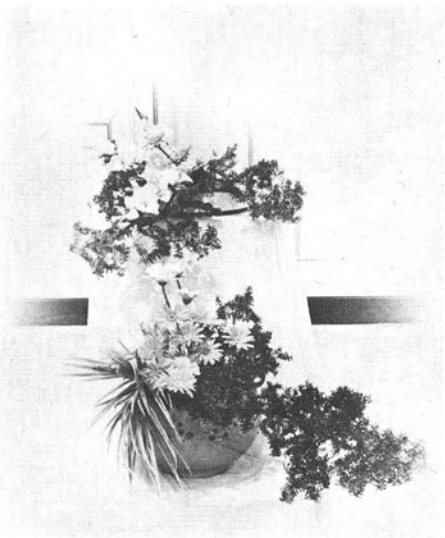
사범 오 민 근

素 材 : 주목 글라디올라스 거베라  
드라세나

花 器 : 원형수반

花 型 : 경사복형

지리한 장마로 온 집안이 침침하고 어디선가 곰팡이 냄새가 나는듯 할 때 대청마루 한 귀퉁이에 옛스런 모습에 환한 현대적 화려함을 더하여 꽃을 꽂아 보자. 굳이 동양적이지 않아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서양적이지도 않고 갓 시집 온 옛 우리네의 새아기 모습처럼 다소곳 하다 순간 장마사이에 찾아온 밝은 태양처럼 상큼하다못해 눈이부시다. 후덥지근한 여름날 정겨운이 마주하여 화채라도 나누며 꽃처럼 환하게 웃어볼 일이다.



## 소녀의 꿈

金燕會 꽃꽂이 용인지부

지도 : 정 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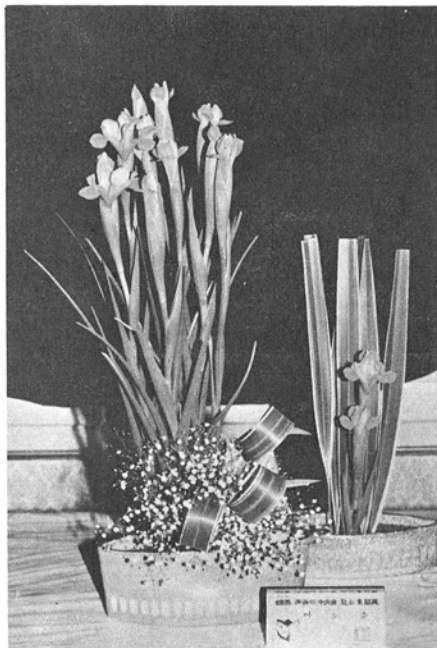
출품 : 이 노 순

素 材 : 붓꽃, 잎새란, 안개  
花 器 : 타원형 도기 수반  
花 型 : 분리형

타원형 도기 수반을 이용하여 꽃은 분리형은 여름 꽃꽂이의 시원함을 더 해주며, 붓꽃과 안개의 조화는 청초한 멋을 느끼게 한다.

### 〈꽂는 법〉

- ① 도자기 수반을 앞뒤로 붙여 놓고, 제일 긴 붓꽃을 앞쪽 수반의 중앙에 높게 꽂아 주고 여러대의 붓꽃을 리듬있게 나열해 꽂으면서 한 면을 구성해 준다.
- ② 잎새란 길이를 붓꽃의 2/3 정도로 가즈런히 잘라 뒷쪽 화기에 꽂아 또 하나의 면을 이루어 놓고, 붓꽃 두송이를 중앙에 곱게 꽂는다.
- ③ 다시 앞의 화기에는 잎새란 세 잎을 등글려 핀으로 고정시켜 우측에 볼륨을 주어 꽂고서, 안개꽃을 묶어 소녀의 마음을 표현해 준다.







1. 학교명 : 문정중학교

2. 교 장 : 김 광 서

3. 주 소 :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 105 번지

4. 연 혁 :

- 1953. 4. 22 재단법인 심곡학원 초대 이사장 이용원 선생 취임
- 1953. 11. 5 문정중학교 개교
- 1957. 7. 4 현 위치로 교사 이전
- 1961. 9. 2 제 4대 이사장(현) 한창호선생 취임
- 1961. 11. 10 2개교실 증축
- 1964. 1. 25 재단법인 심곡학원을 학교법인 심곡학원으로 조직변경
- 1965. 4. 26 3개 교실 증축
- 1967. 11. 5 4개 교실 증축
- 1971. 5. 21 강당 (음악실, 도서실 겸용) 증축
- 1974. 1. 18 12학급 증설 인가
- 1974. 11. 18 2층 1동 (2개교실) 증축
- 1981. 11. 19 제 7대교장 김광서 선생(현) 취임
- 1986. 2. 14 제 33회 졸업식 거행

## 5. 교육 목표

- (1) 열공정신이 투철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을 기른다. (애국인)
- (2) 사랑과 이해로 문제해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른다. (실력인)
- (3) 근면성실하고 고장을 위하여 봉사할 줄 아는 슬기로운 사람을 기른다. (협동인)
- (4) 항상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기능인을 기른다. (실천인)
- (5) 심신을 튼튼히 하여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을 기른다. (건강인)

## 6. 노력 중점

- (1) 다듬고 정진하는 교육
  - ① 학력 향상으로 전년보다 평균 4점 올리기
  - ② 수업 모형 연구
  - ③ 기초 학력 신장
  - ④ 과학 기술교육의 정착
  - ⑤ 교내 장학의 강화
- (2) 국민정신 교육의 강화
  - ① 통일 안보교육의 강화
  - ② 학도 애향대의 활성화
  - ③ 기본생활 습관의 정착화
  - ④ 충효 교육의 철저

## 7. 학교 특색사업

- (1) 전통 민속놀이 계승교육
  - ① 전통 민속놀이로 농악을 선정지도
  - ② 농악을 특별활동부서 교과활동 프로그램으로 지도
  - ③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참여
  - ④ 조상의 얼 심어주기
- (2) 체육진흥의 활성화
  - ① 우수선수 발굴 육성(레슬링)
  - ② 레슬링을 교기로 정하고 전국 상위권의 레슬링 하는 학교로 육성지도
  - ③ 체육진흥회의의 활성화로 레슬링부 후원회 발족계획

\*\*\*\*\* <학교순례>

1. 학교명 : 대한 유도 학교 (문교부장관 학력인정 4년제 체육대학)
2. 학 장 : 고광득 (高光得)
3. 주 소 : 경기도 용인군 삼가리 산 117 - 6
4. 연 혁 :
  - 1953. 6. 15 대한 유도학교 설립 인가 (학교소재 : 서울 특별시 중구 소공동 111번지)  
2년제 초급대학과정, 초대 학장 李範奭 선생
  - 1956. 4. 25 초대 이사장에 金亨泰 선생 취임.
  - 1956. 4. 27 2년제 과정에서 4년제 과정으로 학제 변경 인가.



高光得 學長

<학교순례> ~~~~~

- 1958. 4. 1 제 2대 학장에 李濟晁 선생 취임.
- 1970. 4. 13 학교법인을 대명학원으로 개정하고 학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납동 355 번지로 이전.
- 1971. 6. 12 4년제 학력인정 체육대학으로 지정.
- 1974. 7. 25 제 2대 이사장에 李源秀 선생 취임.
- 1976. 12. 31 격기학과 신설 (40 명)
- 1977. 2. 9 제 3대 학장에 金渭生 선생 취임.
- 1980. 12. 29 제 4대 학장에 李相燦 선생 취임.
- 1981. 1. 31 유도학과 40 명, 격기학과 70 명 증원
- 1982. 1. 9 태권도학과 신설 (100 명)  
입학 정원(유도학과 200 명, 격기학과 200 명, 태권도학과 100 명, 계 500 명)
- 1984. 12. 17 학칙 변경인가(사회체육학과 40 명, 무용학과 40 명 신설)  
입학 정원(유도학과 : 주간 100 명, 야간 100 명  
격기학과 : 주간 100 명, 야간 100 명  
태권도학과 : 주간 50 명, 야간 50 명  
사회체육학과 : 주간 40 명  
무용학과 : 주간 40 명)                    계 580 명
- 1985. 2. 20 학교법인 및 소재지를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삼가리 산 117 - 6 번지 6호로 이전.
- 1986. 3. 20 제 5대 학장에 高光得 선생 취임.

5. 교육 목표

- (1) 본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학구적이며 성실하고 실천력이 강한 개성의 완성을 기한다.
- (2) 민족 상무의 정화인 화랑정신의 이념을 현대적으로 계승케 하여 현대 체육으로서 무도의 발전을 기한다.
- (3) 이론과 실재가 겸비되고 지성과 도덕적 품위가 높은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기한다.

## 6. 용인 캠퍼스 마스터 플랜

체육 및 스포츠의 과학화와 국제교류의 다변화로 고급 체육지도자의 수급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86.88대회 이후로 예상되는 사회체육 지도자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교는 장기적 발전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이미 확보된 12만평의 교지에 본관, 체육관, 기숙사 및 기타 시설들이 건설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초현대식의 체육관은 국내 유일한 시설로 건설되었으며, 특히 400m트랙이 구비된 대운동장은 체육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 충분하다.

86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건설 중인 도서관 건물은 연건평 1천 2백여평 규모로 학생 복지시설 및 교수연구실을 수용하게 되며 야외 음악당, 옥외플장 등도 연차적으로 건설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체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화 시대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발전을 계속할 것이다.



體育館 全景

# 言論界의 先覺者 石儂 柳 瑾

## (上)

朴 鏞 益

향토사(鄉土史)를 조사 연구하면서 용인이 낳은 역사적 인물(歷史的人物)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근대인물(近代人物)을 살펴보았다. 석농(石儂) 유근(柳瑾) 선생님이다. 선생은 언론계(言論界)의 선각자(先覺者)로서, 또한 신교육(新教育)으로 후진양성(後進養成)에 힘을 기울이신 분이기에 다시금 살펴 보기로 한다.

유근(柳瑾) 선생은 1898년에 황성신문(皇城新聞)을 창간(創刊)하여 한국신문사(新聞史)에 찬란한 업적을 남기신 언론계(言論界)의 선각자(先覺者)이며, 휘문의숙(徽文義塾: 휘문중고등학교의 전신)에 몸담아 신교육(新教育)에도 남달리 관심을 갖고 후진양성(後進養成)에 힘을 기울이신 분이다.

1861년에 용인읍 김량장리에서 참봉(參奉)을 지낸 아버지 최근(最根)과 어머니 경주김씨(慶州金氏)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한학(漢學)과 문장(文章)에 뛰어난 수재(秀才)로서, 자(字)는 경집(敬集), 호(號)는 석농(石儂)이라 하며 본관(本貫)은 전주(全州)이다.

그는 이름 두자보다, 석농(石儂)이란 호(號)를 즐겨 썼으며, 언론(言論)을 통해 민중(民衆)을 계도(啓導)하고 민의(民意)를 수렴하는데 앞장섰었다.

황성신문(皇城新聞)의 필화사건(筆禍事件)으로 폐간(廢刊)케 된 유명한 논설(論說)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초(草)하기도 하였고, 또한 1920년 동아일보(東亞日報) 창간호(創刊號)를 보면 “주지(主旨)를 선명(宣明)하노라”라는 창간사와 함께 유근이 쓴 논설(論說) “아보(我報)의 본분(本分)과 책임(責任)”이 게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근은

“동아일보야 너의 부담 무겁도다. 너는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이다. 그의 사상, 그의 희망, 그의 목표, 그의 심리 일일이 보도하여 그로 하여금 능히 기립케 하며, 그로 하여금 능히 발전케 하며, 그로 하여금 능히 비약케 함을 믿노니 너를 너는 조선 민중의 권리 보호자. 그의 정신, 그의 정의, 그의 활동, 일일이 지배하며, 그로 하여금 능히 압제를 탈면케 하며, 그로 하여금 능히 권능을 시사(施使)케 하며, 그로 하여금 능히 언론을 표현케 하여 인(人)의 고유한 자유를 유지함을 믿노니 너를 ……… 무겁다. 너의 책임, 자유권 잃지 않고 만난을 배각(排却)하고 용왕직전(勇往直前) 거침없이 신지(信地)에 도달하여라”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항일(抗日) 선각(先覺) 언론인으로써 우리 나라 언론계의 초창기(初創期)를 수놓은 인물이요, 박학(博學)강기(綱紀) 하였던 학자(學者), 지사(志士)로 교육사업에 몸바쳤던 유근은 1921년에 기울어져가는 국운(國運)을 염려하며 눈을 감으니, 그 당시(當時) 사회장(社會葬)이란 말이 없었지만 장엄한 사회장(社會葬)으로 옛 동아일보(東亞日報) 자리에서 발인(發掘)하여 중간에 여러번 路祭(노제)를 누리시고 영영 자취를 감추신 일을 어느 노필(老筆)은 기억을 더듬으며 남겼으니 “역사언어(歷史言語)”란 글이다. 이는 석농(石農) 선생의 생애(生涯)에 있어서의 주관(主觀)을 잘 나타낸 일화(逸話)라 할 수 있다.

이 고장 용인이 낳은 석농(石農) 선생의 생애(生涯)를 살펴보건대 언론계의 선각자로 더 소개(紹介)할 나위가 없지만 젊은이들 하고 늘 무릎을 대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때 젊은이들 하고 놀기 좋아하는 노인(老人) 두 분이 있으니, 곧 석농 선생이고 하나는 세상에서 또한 유명한 월남(月南) 이상재(李商在) 선생이다. 그 분은 10여년의 나이 차가 있으며 월남(月南) 선생이 존장(尊長)이시다. 장유(長幼)의 분별(分別)로 노소(老少)의 풍절(風節)을 확실히 차릴 줄 아시지마는 그 분별(分別), 그 체면(體面)을 차리지않고 너 나 우리 하며 욕설(辱說)까지 하며 구별없이 지냈으니, 이는 그들이 뜻이 맞고 일이 같은 까닭이라 하겠다. 가끔 피짜욕(辱)을 먹는이는 나이 10여년이나 아래인 석농(石農) 선생이었다.

석농(石農) 선생은 돌아갈 무렵에 별호(別號)를 고친 것이다. 그 까닭은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젊은이들과 놀기를 좋아하며 뜻이 다른 까닭, 다시말하면 뜻이 없는 까닭이다. 그 때 한참 주시경(周時經)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가가 거겨”하며 국문(國文)이니 국학(國學)이니 하여 국어(國語)를 바로잡고 세우자고 의논(議論)하고 외치는 중이라 석농(石農) 선생은 나도 너와 같이 일을

해야겠고 내가 너희만 못한 까닭이 있느냐며 새로이 “돌놈”(石儂)이라 하고 젊은이로 하여금 “돌놈”이라 부르게 하였다.

“돌놈”이란 뜻은 나는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며, 매인테 없이 따로 떨어진 돌놈 곧 “돌놈”이라는 데 있다. 그가 자기 또래끼리나 어느 시축(詩軸)끝이나 문서상(文書上)에는 “돌놈”이라 쓰지 않고 반드시 “石槍”이라 썼으니 아무리 모든 것을 파격(破務)하고 젊은이를 쫓는 좋은 뜻 있다 하여도 끝내 습관(習慣) 하나에는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도 없지 않았다.

선생이 조선말로 별호를 지어 젊은이더러 그렇게 부르라하시고 실제로는 “石儂”이라 쓰시니 명실상부(名實相副)하지 아니하며 또한 “석농(石儂)”이라는 뜻이 “돌놈”하고 같습니까? 하고 물으면 선생은 또 남에게 지지않는 성미(性味)라 어떻게 휘어대든지 변명(辯明)하고 말았다. 그 후 어느 연회(宴會)끝에 재담추침(才談抽籤)에 용수 설명(說明)이 “석농 선생의 “육입성”이라고 나왔다. 그는 그것을 보고 “젊은놈들의 아가리는 과연 버릇없다”고 하였다.

또한 어느 자리에서 “호지부지”한다는 말이 나와서 서로들 운운(云云)하니 선생은 “이것은 아무래도 한문(漢文)이지? 너희들은 달리 설명할 도리(道理)가 있겠는가?” 하며,

“호지부지”는 “호지부지”가 아니라 “휘지비지”이니 곧 “숨기고 감추어 없앤다”는 뜻으로 “휘지비지(諱之秘之)”라 하였다.

그 자리에서 어느 소년이 반대하였다.

“그 말이 한문(漢文)으로 된 말이 아니라 순조선(純朝鮮) 말이니 말소리가 “휘지비지”가 아니며 “호지부지”이며 “휘지비지”라 하여도 한문이 아니라 “휘지비지”는 곧 “휘지르고 비비적거려 없애고만다”라고 설명(說明)하니 “에~ 그 젊은놈들이란 할 수 없다” 하였다.

또 그는 가끔 우스개 말이 많았으니 그 한 예(例)로, 어느 젊은이가 “신선술(神仙術)”을 물으니

“조선(朝鮮)은 옛적부터 선교(仙敎)가 신교일파(神敎一派)로 내리 전(傳)하야 문적(文籍)과 전설(傳說)이 많으며 조선(朝鮮)의 선교(仙敎)가 중국(中國)에 까지 영향(影響)을 주어 중국의 도교(道敎)는 조선선교(朝鮮仙敎)에서 근원(根源)하였다”는 설명을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신선(神仙) 알지. 장생법(長生法)과 비승술(飛昇術)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올라간다하고 이것봐 이것봐라하다 그만 올라가 없어졌단다” 하고 손을 번쩍 들었다. (좌중(座中)은 아하하…… 하고 웃음바다)

주시경(周時經) 선생은 조선(朝鮮)말로 이름을 “한한샘”이라 하였으니, 그



뜻은 아마도 태백천(太白泉)일 것이다. 주(周)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석농(石農) 선생은 놀라는 말솜으로

“아~ “두루때버리”가 죽었어. 쓸 사람은 죽어! 못쓸 내나 죽지?” 하고 애석(愛惜)하는 마음과 늙은이의 정(情)을 표(表)하였다. “두루때버리”란 말은 주(周) 선생이 조선(朝鮮)말을 연구한다고 하여 여러 사람에게 “조선말을 연구하라”고 권하려면 저도 주시경(周時經)이라 하지 말고 “두루때버리”라 하지 않고 늘 조롱(嘲弄)한 까닭이다. 그런데 주(周) 선생 집안은 야소교도(耶穌敎徒)임으로 선생의 상청(喪廳)을 베풀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석농(石農) 선생은 “그래 거룩한 사람의 상청(喪廳)을 아니해놓으니 야소교(耶穌敎) 믿는 놈은 제 아비를 생각하고 기념(紀念)하는 자리를 차려놓는 것도 마귀(魔鬼)야! 아비도 마귀(魔鬼)야! 하고 더욱 애석(愛惜)함을 표(表)하며 자기의 소신(所信)이 옳다는 생각을 나타내지 않았다.

석농(石農) 선생을 걸으로 한번 훑터보면 키가 후리후리하고 얼굴이 일금일금하여 말소리가 덜덜하며 행동(行動)이 설설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처음 보고는 그 무슨 지킬성이 있을 것 같지 아니하고 그저 한 호한(好漢)같이 생각되지는 실상(實相)은 그 설설한 속에 튼튼이 있으며, 일금일금한 속에 차분한 것이 있으며 후리후리한 속에 달아진 것이 있었다. 그리하여 자기(自己)가 지키는데에는 쌀쌀하기 서리같으며 매서워 범(犯)치 못할 것이 있다 하여 여생(餘生)이 대단히 초초(屑屑)하였지마는 도무지 구김이 었고 늘 허담평화(虛坦平和)하였다. 평화함으로 그를 해(害)하는 이가 없으며 허담(虛坦) 함으로 남들이 그를 믿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 오는 것은 살림의 꾸김이었다. 그러나 집에는 늘 손님이 가득하여 여러 친구(親舊)가 의논(議論)하러 오며, 고학생(苦學生)을 도운다 하여 끼니를 잊지못함이 저욕이 많았다. 그러나 지키는데는 무서웠다. 말하자면 아무리 어렵다하여도 의(義)를 팔지 않았다. 그러한 중에 어느편?(친일과계통)에서 이름만 빌려주면 자수(柴水)의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권고(勸告)도 물리쳤으며 자기의 죽마(竹馬)의 벗이요, 연사간(連查間)인 모씨(某氏)하고도 의(義)에 어그러졌다하여 친교(親交)를 끊었다.

선생이 이미 고인(故人)이지마는 정말 고인(故人)에 대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이다. 이러한 중에도 틈틈이 역사(歷史)를 적어 가끔 시위(時諱)에 거슬린 적도 있었다. 그리고 시(詩)에도 각별한 취미(趣味)가 있어서 예사롭게 언행(言行)으로 퍼지못한 언행(言行)을 시(詩)로 나타내었다. 그가 성질이 설설하니만큼 우스개소리와 실없는 장난이 많았으니 겸곡(謙谷) 박은식(朴殷植) 선생하

고는 일찍부터 교분(交分)이 깊어 글을 같이 쓰고 지내며 공무(公務)를 같이 본적도 오래되었다. 황성신문(皇城新聞)에서 붓을 잡을 때이다. 이 선생들이 점심을 때마다 이천오리(二錢五厘)짜리 설농탕으로 이었는데 겸곡(謙谷) 선생은 영변(寧邊)어른이라 서울 사정(事情)에 익숙치 못하여 아니 시골 양반(兩班)이라는 것보다 그전 선비들이라 물정(物情)에 어두어 설농탕을 잡숫지만 소금과 양념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간없는 맨 설농탕을 4~5일간 계속하였다. 몇일 후에 다시 점심을 시키는데 또 설농탕으로 이야기가 도는지라 겸곡(謙谷) 선생이 “나는 설농탕 싫어”라고 하셨다. 석농(石農) 선생이 옆에서 “왜그러나” 하고 물으니 “어이~ 싱거워, 어찌 먹겠나. 나는 싫어”라 하셨다. 석농(石農)으로부터 시작하여 좌중(座中)이 박장대소(拍掌大笑)하였다. 이는 석농(石農) 선생이 겸곡(謙谷)이 설농탕을 자실줄을 모르니 몇일 장난을 해보자고 소금 양념치는 법을 알리지 아니하기로 귀뜸하였던 것이다. 겸곡(謙谷)이 석농(石農)을 탁치며 “이놈아 사람을 그렇게 속여! 모두가 네짓이지. 어른을 모르고 하였구나” 참 태고(太古)적 양반(兩班)들이다.

〈다음 호에 계속〉

# 地神밟기

河 周 成 提 供

## 目 次

- 一. 地神밟기의 意義
- 二. 地神밟기의 分布
- 三. 龍仁의 地神밟기
  - (1) 演戲時期
  - (2) 人員編成
  - (3) 놀이過程

## 一. 地神밟기의 意義

地神밟기는 우리나라의 全域에서 演戲되던 民俗으로 正月 2~3日頃부터 始作해 正月 보름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地神밟기의 起源은 三國誌 槐誌 東夷傳 馬韓條 등 三韓條에 共通의으로 나타나듯이 5月 下種과 10月 秋收가 끝나면 모두가 모여서 鬼神에게 祭祀를 드리고 술과 飮食을 먹으며 팔과 다리를 움직여 踏地低昂하며 밤을 새웠다는 記錄이 있어 아주 오랜 옛부터 이러한 風習이 傳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儀式이 變하여 마을의 風物잡이 들이 마을을 돌며 地神밟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踏地低昂의 演戲方法은 共通의인 儀式으로 나타나며 요즈음에는 쇠퇴되어 一部 地域에서만 演戲되고 있는 實情이지만 우리나라의 全域에 걸쳐서 나타난 巫俗의인 民俗놀이로써 正初에 地神밟기를 함으로써 모든 雜鬼 雜神을 물리쳐 그 해에 洞里의 平安과 집안의 安寧을 빌었으며 이러한 地神밟기는 걸립때나 거북놀이, 줄다리기의 演戲過程에서도 나타난다.

## 二. 地神밟기의 分布

地神밟기는 韓國의 全域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畿湖地方에서는 어느 地域이고 이 地神밟기가 盛行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畿湖地方에 널리 分布되어 있는 거북놀이에도 집고사의 演戲過程에서 이 地神밧기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其他 줄다리기의 과정에서도 줄을 다리기 前의 演戲過程에서 우물굿, 堂굿 등에서 이러한 地神밧기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地神밧기는 民俗놀이의 過程에서 나타나는 것은 地域나름의 特徵이 나타나지만 地神밧기에서는 辭說이나 쇠가락은 特別하게 나타나지만 地神을 밧는 過程이나 형태는 같다.

이러한 地神밧기는 特別한 地域의 民俗이 아닌 어느 地域이나 나타나고 있으며 洞리에 風物隊가 없는 곳에서는 他地에서 請願된 農樂隊가 와서 地神밧기를 하기도한다. 正初에 演戲되는 地神밧기는 모든 厄을 消滅한다는 理由로 全國에서 正初에 部落마다 演戲되곤 했다.

### 三. 龍仁의 地神밧기

龍仁地方의 地神밧기도 두레 農樂이 한창 活潑한 演戲活動을 할때는 洞리마다 이루어졌으나 5~60여년 前부터 쇠퇴되어 4~50여년 前부터는 거의 全域에서 쇠퇴기를 맞이하여 점차 사양길에 접어들다가 最近에는 거의 完全消滅狀態에 놓여 있으며 한 두명의 技藝人만이 외롭게 쇠가락을 치기 때문에 相對적으로 地神밧기도 斷絶이 된 상태이다. 이러한 龍仁地方의

地神밧기는 거북놀이에서도 나타나며 一部地域의 줄다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正初뿐이 아닌 八月 보름날도 演戲가 된것으로 보아지며 最近에는 洞리 두레패의 쇠퇴로 인해 살아지고 가끔 利川이나 外部의 請願된 쇠잡이에 의해 年初에 걸립과정에서 부분부분 나타나고 있는 實情이다.

#### (1) 演戲時期

龍仁地方의 地神밧기도 他地域과 마찬가지로 正初에 演戲되었으며 보통 正月 2~3日頃에 始作해 보름까지 12~13日을 계속 演戲되어 왔다.

이러한 地神밧기는 洞리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地神을 밧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다녀도 몇집 以上을 다닐 수 없으며 大洞일 경우에는 正月 한달을 다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龍仁의 地神밧기는 八月 보름밤에 演戲되는 거북놀이의 演戲過程에서도 집안 곳에서 踏地低昂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演戲時期를 꼭 正初라고 단정 지을수가 없다. 다만 地神밧기라는 名稱의 民俗이 正初에 演戲되는 理由는 年初에 厄을 막아야 一年동안 安過太平을 누릴 수 있다는 土俗信仰에서 나타나는 信仰의인 巫俗性때문이며 우리나라의 俗說에도 內容이 보이듯이 年初에 不吉하면 一年내내 불길하다고 믿어 年初에 地神밧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人員編成

龍仁 地神밧기의 人員編成은 旗집이 風物집이 어릿광대로 區分되어 있으며 近接地域인 平澤, 安城 等地에서 나타나는 舞童은 編成되지 않는다.

이러한 理由는 安城, 平澤等은 옛부터 男寺堂의 細技나 화려함을 생각해 舞童의 編成이 이루어졌지만 龍仁 地方의 두레대는 그러한 地域보다는 編成에서 간단한 형태로 나타난다.

龍仁 地神밧기의 基本的인 人員編成을 보면

○ 農旗집이 : 1名으로 등걸 잠방이에 삼색띠를 두르고 고깔을 쓰고 짚신을 신는다.

○ 令旗집이 : 2名으로 복색은 農旗집이와 같다.

○ 風物집이 : 상쇠, 부쇠, 징, 북, 장고로 구분되며 상쇠, 부쇠는 부도상모, 징과 북, 장고는 고깔을 쓰고 등걸잠방이에 짚신을 신고 삼색띠를 두른다.

○ 어릿광대 : 광대는 양반 광대나 여중, 머슴등이 나타나며 때에 따라서는 3~5명이 작은 編成에서는 그중 하나뿐만 나타나곤 한다.

○ 태평소 : 바지저고리에 짚신을 신고 머리띠를 두른다.

이러한 編成은 地域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며 大洞과 小洞의 차이에 따라서 人員의 많고 적음도 나타나곤 한다.

## (3) 놀이過程

龍仁 地方의 地神밧기의 놀이 過程은 地域에 따라서 약간의 差異가 나고 있으며 그것은 집안고사의 進行過程에서 고사반(대청굿)과 터주굿, 조당굿 등의 過程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過程의 順序는 집의 구조나 인술자인 상쇠의 進行에서 變化가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告祀의 순서는 꼭 지켜지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 ○ 길놀이

正初에 坪神이 오는 날이 되면 洞里的 地神밧기 演戲隊 一行은 마을의 入口에서 길군악 가락을 치며 길놀이를 시작한다.

### ○ 우물고사

길놀이를 하며 마을에 들어온 演戲隊 一同은 마을의 共同우물에 가서 우물고사를 드린다. 상쇠의 “용왕님네 용왕님네 7년대한 가뭄에도 물이나 괄괄나게 해주소. 9년 장마 홍수에도 물이나 맑게 해주소. 사해 용왕님네 사해 용왕님네 이 물을 만인간 수명장수 금시발복 발원이요!” 하고 祝願을 드린 후 삼채장단을 치며 우물주위를 돌다가 마을의 당집으로 향한다.

### ○ 당고사

마을의 당집에 도착한 놀이대 일행은 인사가락을 치고 세번 절한후 삼

채장단에 맞추워 동리의 집으로 들어간다.

○ 門고사

집의 문 앞에 도착하면 다드래기<찾은가락>을 치며 뛰다가 밋고는 상쇠의 문긔풀이를 한다. “문여시오 문여시오 수명장수 들어가오”라고 고사담을 하면 주인이 나와 맞이하고 일동은 삼채장단을 치며 집 안으로 들어간다.

○ 마당고사

집안으로 들어간 一同은 상쇠의 뒤를 따라 우물을 돌고 마긔간등을 다니며 땅을 밟는다.

○ 告祀소리

마당에 있는 여러곳을 다니며 地神 밟기를 한 一行은 대청 앞에 와서 밋고 ;가락을 물었다가 그치면 준비된 고사상 앞에 가서 서고 상쇠의 告祀念佛이 불리워지며 이때 상쇠가 고사소리를 하지 못하면 광대가 혹은 고사소리를 하는 사람을 따로두기도 한다. 이때 대청긔의 고사소리는 “太平聖代; “홍수풀이; “달거리; “농사풀이”의 순으로 계속되며 북잡이는 사잇가락을 친다.

※ 홍수풀이

작년같은 험한세월  
꿈결같이 다 보내고  
금년 새해에 접어들어  
홍수대살을 풀고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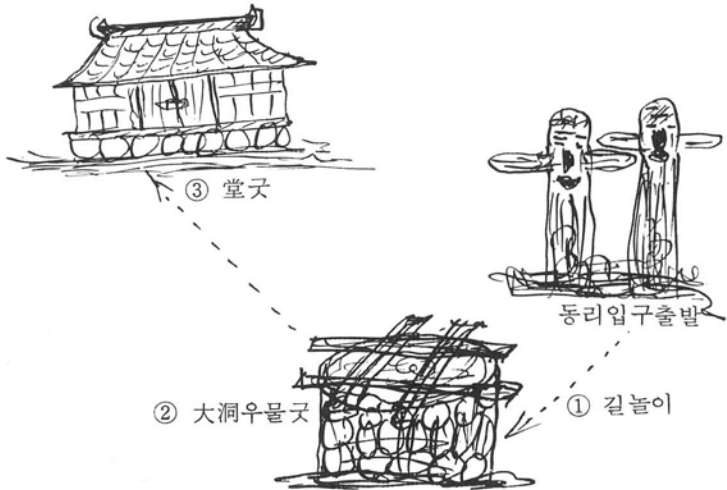
모랭이 모랭이 서낭살  
돌무더기도 서낭살  
고개고개도 서낭살  
바깥마당에 벼락살  
대문간에 수문장살  
안마당에 해룡살  
굴독위에 대장간살  
원근 도중에 이별살  
내외 간에도 이별살  
산에 오르면 산신살  
물에 들면 용왕님살  
마긔간에 우마대살  
장독간에 고두대살  
부엌에는 대장군살  
마루대청 성주살  
아래윗방 지석살  
햇불 밑에 능마대살  
햇불 끝에 삼신살  
도적 맞은데 실물살  
살인난데 제면살  
이살 저살 휴물아다  
금일 고사반에 도액을 하니  
백사가 예일하고  
만사는 대길이요.

※ 달거리

이택 가정에 달거리가 세다하니  
달거리를 풀고가자  
정칠월 이달월 삼구월 사시월  
오동지 육선달인데  
이 가뭄에 물은 정을  
다 풀어 점지하자  
정월에 드는 액은

이월 영등 막아주고  
 이월에 드는 액은  
 삼진날 제비 멧백이로 막아주고  
 삼월에 드는 액은  
 사월 초파일 관등놀이로 막아주고  
 사월에 드는 액은  
 오월 단오 그네줄로 막아주고  
 오월에 드는 액은  
 유월 유두 밀젼병이로 막아주고  
 유월에 드는 액은  
 칠월칠석 오작교 놓던 까치머리로  
 막아 주고  
 칠월에 드는 액은  
 햅쌀 송편 나누어주던 쟁반굽으로  
 막아주고  
 팔월에 드는 액은  
 구구절에 국화농주로 막아주고

구월에 드는 액은  
 시월 시루떡으로 막아주고  
 시월에 드는 액은  
 동지 팔죽으로 막아주고  
 동지달에 드는 액은  
 선달 흰 떡가래로 막아주고  
 선달에 드는 액은  
 내년 정월 열 나흘날  
 오곡밥을 정히 지어  
 방망이 맞은 북어대가리  
 백지 한장에 둘둘 말아  
 막걸리 한잔 척 끼었어  
 원강에 소멸하니  
 백사가 여일하고  
 만사는 대길이요  
 마음가짐 잡순대로  
 소원성취 발원이라.



(地神밧기의 進行圖)

○ 조당굿

대청굿(告祀念佛)을 마친 놀이대一同은 부엌으로 들어가 조당굿을 한다.

상쇠가 “누르세 누르세 조당자신누르세”하면 일동이 따라서 “누르세 누르세……”를 외치며 부엌의 바닥을 똑똑 밟는다.

○ 터주굿

장독대 옆의 터주가리를 돌며 일동은 “누르세 누르세 터주지신 누르세”를 외치며 땅을 밟다가 삼채 장단을 치며 마당으로 나와 주인이 주는 술

을 한잔씩 받아 마시고 다음 집으로 간다.

이렇게 진행되는 地神밟기는 집집마다 다니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려 洞里全體를 돌면 10여일이 넘게 걸리며 이 地神밟기는 대개 洞里的 두레패가 하기 때문에 집 주인이 내어 놓은 돈과 곡식은 마을의 共同事業을 위해 쓰여지며 外部에서 請해 왔을 경우에는 一部를 떼어서 댓가를 치르기도 했다.





## 남귀기행(南歸記行)

弧山 尹善道 지음  
洪順錫 옮김

고산 윤선도(1587~1671)의 기행시〈남귀기행〉은 칠언시 122구로 구성된 장편 한시이다. 그의 나이 25세 때 서울에서 고향인 해남(海南)까지 간 여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담담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우리 나라기행 시가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정철의 〈관동별곡〉이 유람의 여정을 담은 기행가사라 한다면, 고산 윤선도의 이 작품은 유람이 아닌, 고향의 첫 나들이라는 점에서 달리 보인다.

윤선도의 〈남귀기행〉은 기행시로서의 제반 요건을 잘 갖추고 있어, 당시의 정황을 쉽게 엿볼 수 있다. 날짜, 여행지의 정경, 견문, 인상깊었던 일 등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전체의 구성은 서두(1~6행), 본론(7~120), 결어(121~122행)으로 되었는데, 이 당시의 여정을 정리해 보이면, 서울→용인→안성→공주→참례→신태인→정주→노령→장성→금성→영암→강진→해남으로 되어 있다. 용인 지역을 고산 윤선도가 밟은 것은 그가 서울을 떠나 제일 먼저였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서의 감회와는 달랐던 것 같다. 우선 이 시작품의 성격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서두의 시를 보인다.

만력 39년(1632년)에  
북두칠성 子方에 오는 7일이라.  
거문고 수선, 약 구입 등 일마치고,  
멀리 부모 계신 곳 그리며 해남으로 향하네.

(萬曆紀年三十九, 斗柄插子日有七, 修琴賣藥吾事畢, 遙念庭闈向南國)

위의 시구에서 그가 서울을 떠났던 것은 만력 39년으로 그의 나이 25세 때였음을 알 수 있다. 기행의 목적과 차비를 하는 광경이 잘 그려져 있다. 다음으로, 고산 윤선도가 용인을 지나며 느낀 감회를 옮겨 본다.

사람도 말도 지쳐 일찍 주막에 드니  
물가의 외딴 마을 이름도 모르겠네.

옛 문헌속의 용인(5)\*\*\*\*\*

새벽에 나서며 용인 길을 물으니,  
넓은 냇가 거친 언덕 겹겹이 막힌 곳이라네.  
만나는 사람마다 소초까진 멀다 하고,  
양성을 지나자 해가 벌써 지누나.

(人煩馬殆早投宿, 水邊孤村名不識, 問程曉出龍仁境 平川荒壟重重隔, 人言素  
草店尙遠, 路過陽城日已沒)

기행시에서의 중요한 하나가 그 지방의 특색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위의 시는 그같은 점이 잘 드러나 있다. 서울에서 떠나 용인, 안성으로 여행하면서 본 정경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데, “용인길을 물으니, 넓은 냇가 거친 언덕 겹겹이 막힌 곳”이라 한다면, 우리 고장의 첫 인상을 적고 있다. 야트막한 야산들과 군데 군데 형성된 들판이 아기자기하게 벌여진 곳, 그곳이 바로 윤선도가 본 용인이다. 이덕무(李德懋)가 <용인을 지나며(龍仁途中)>라는 시에서 읊은 것처럼 자세하지는 않으나, 용인 지역의 특색은 사실 그대로 잘 드러내 보인다. 이덕무가 “누른풀 가늘고 돌비탈 희미한데/토만두가의 나무들 아람에 가득차네(黃草纖纖石磴微/土饅頭畔樹盈園)”라고 한 바 있고, 현대 시인 민영(閔泳)은 “저 산벚꽃 핀 등성이에/지친 몸을 쉴까/두고 온 고향생각에/고개 짓는다”라고 하여 용인 지역에서 고향의 다정함과 무덤이 많은 것이 인상깊었음을 표현한 것에 비하면, 고산 윤선도가 본 바는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가 제일 먼저 찾아나선 곳이 용인이요, 그곳은 야트막한 산세와 군데 군데 형성된 들판의 아기자기함을 느끼게 한, 고향에서의 정감을 느낄 수 있었던 곳이었다는 점에서 호감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지리산, 설악산과 같은 거세고 험준한 산세와 앞 길을 막아 있는 것이 아니요, 그저 야트막한, 부드러운 젓가슴처럼 형성된 산세가 그가 찾는 고향 첫나들이의 따뜻함을 더욱 분투아 준 것이다. 어느 누구든 우리 고장을 지나며 고향에서의 포근함을 느꼈다는 사실은 용인에서 사는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길을 가다가도 어느 곳에서든지 뺨을 문을수 있는 곳, 옛 사람들도 처음 찾는 곳이면서, 낯설지 않았던 곳, 그곳이 바로 내 고향 용인이다.

## 사은정중수기(四隱亭重修記)

李 容 九 지음  
洪 順 錫 옮김

서울의 남쪽 구성현 두암 위에는 예로부터 정자가 있었으므로, 지금 새로 지으면서도 편액은 옛날 그대로 사은이라 하였다. 사람들이 전하여 말하기를, “정자를 세우는 이유는 산수가 아름답기 때문에 짓는 것이며, 인물의 번성함으로 이름불린다.” 하였는데 이 정자를 은(隱)이라 함에 일은(一隱)이라 하여도 가할 것을 어찌 사은(四隱)이라 하였는가.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옛날 정암(靜岩) 조선생과 당질 방은(方隱), 회곡(晦谷) 증계공(仲季公) 및 음애(陰涯) 이공이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네분은 도의로써 계를 맺고 은거하여 그 뜻을 구하고자 경(耕) 장(莊) 조(釣) 채(菜) 네가지 낙을 취하여 여기에 정자를 짓고 이름 붙인 것이다. 정자 근처에는 선현의 묘소가 있고 전원의 취미를 갖들일 수 있었다.” 하였다.



四隱亭 懸板, 기흥읍 지곡리 두암산 기슭

뒤에 화를 당하여 정자 역시 폐해지고, 네 분이 서로 화답하며 지은 글과 서찰도 없어서 전하는 것이 없었다. 오직 음애공이 조수재(趙秀才)에게 보낸 글이 남아 있을 뿐인데, 같이 은거하고자 한 뜻이 나타나 있다. 네 집안의 후손들이 그 뜻을 흠모하여 이 정자를 증건하고, 민상서 종현(鍾顯)이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그같은 일이 있었지도 근 백여년이 되었으니 이번 중수함에도 기를 적을 만하리.

내 생각하건대, 군자가 처세함에 숨고 나가는 것은 때에 따르는 것이요, 도가 더럽혀지고 융성함도,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운 것도 그에 연관된 것이다. 처세함에 숨고 나가는 것이 군자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조선조 기묘사화 때 북문에서 일어난 화로 조정의 모든 현인이 억울한 죄를 입어 유배되거나 참수당하였음을 어찌 말로써 다 할 수 있으리요. 세상에서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혹 “그 일을 너무 서둘렀다거나, 너무 거센 것이 현인들에게 병폐가 되었다.” 하고, 혹은, “군자가 은거하여서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 하나 이 역시 마땅한 말은 아닐 것이다. 지난 여러 현인들이 공경하고 현량하여 과거에 선발되어선 유가의 도를 앞장서서 밝히고, 후학들을 일깨워 주었으므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진실로 백성들을 잘다스려 보살피움이 오랜동안 두루 미쳤다면, 하, 은, 주 삼대의 태평성세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슬프다. 저 소인들은 이익을 꾀함에 재주가 있고, 참언하고 아첨함에 뛰어나 우리의 충성스런 현량들에게 해를 끼쳤고, 스스로 후세에 더러운 이름을 남기고자 하였으니, 그 어질고 사특함의 분별은 엄동 서릿눈을 맞은 초목의 시든 모습과 소나무, 잣나무의 절개가 더욱 청청한 것과 같이 드러나리라.

만약 현자가 은거하여 영원히 전원 생활만을 기약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짐을 생각 않는다면 어찌 어질다 하겠는가. 성스러운 임금을 만나 어진 선비에게 정치를 맡긴다면 우리는 겸선지도(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을 베풀)로써 시정을 다스려 환히 빛날 것이며, 태평성세에 이 백성들을 살게 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공자와 맹자같은 성현도 임금을 얻어 도를 행하기를 생각하였던 것이다. 단지 간신들이 막아서 때를 만나지 못하고, 백성들을 제도하지 못하였으니, 그 잘되고 못됨의 기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했겠는가.

선비가 이 세상에 나서 은거하여서는 덕성을 존중하고, 학문을 닦으며, 재야에선 효연히 자락하며, 나아가서는 벼슬하여 요순시대의 임금과 백성을

생각하며 국세를 반석 위에 올려 놓고, 큰 일을 말하였어도 지조를 빼앗기지 않고, 궁한데 처했어도 고민하지 않으며, 참언에 말려들어도 원망하지 않고, 죽음에 임해서도 그 본성을 변하지 않았으니, 살아서는 만백성의 선망이요, 죽어서는 백세의 스승이시다. 이를 일러 군자라하리니, 반드시 성패 득실로써 논할 것이 아니요, 운명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네 현인이 처음에 나무하고, 농사지며, 낚시질하던 뜻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며, 늙어서는 함께 은거하려했던 것인데, 훗날 화란이 일어났으니, 이는 의리의 분별함에 있는 것이요, 숨거나 나가는 것의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취 비록 같지 않으나 그 도는 같다.

갑자년 봄에 네 현인의 유손이 함께 궤하여 자금을 내어서 옛 정자를 지음에, 조문정공의 사당과 묘소가 또한 같은 군에 있으니 그 흠모함은 더욱 더하리라. 조국형(趙國衡), 이인규(李麟珪)가 그 일을 주도하고, 병인년 봄에 일을 마치었다. 모두 4 칸으로 전답이 두어 경이고, 옛날과 같게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 사은정이다. 훗날 이 정자를 오르는 사람은 마땅히 옛 선현들이 여기서 행한 의례를 본받을진저.

병인년 5월 그믐 기해일에 동정대부 봉상시부제조겸 장예원 장예복주 이용구(李容九) 글을 짓고, 후학 동래 정영조(鄭榮韶)가 쓰다.

#### 四隱亭重修記

漢之南 駒城縣 斗岩之上 古有亭 而今新之 扁仍舊四隱 人諗之 曰亭之所以設者 山水之勝焉而作之 人物之繁焉而名之 斯亭也隱之云 奚且 一之可隱 矧多乎四焉 僉曰 昔靜菴趙先生 與堂從方隱 晦谷仲季公 暨陰崖李公 相友善 四賢契道義 隱居求其志 取耕莊釣採四者之樂 尋于斯 名其亭 亭之近存邱 墓之敬 寓田園之趣云 後來經禍關刦 亭其亦廢 四賢之唱酌詞章筆札 翳無傳焉 惟陰崖公寄趙秀才書存 而當曰偕隱之志著矣 以四家後昆之慕 重建是亭 閱尙書鍾顯記其事 年又近百 有此重修其可記也 余惟君子之隱顯 時也 道之污隆 世之治亂 係焉 其隱其顯 君子而於身心何有 我朝已卯北門之禍 登廷諸賢 寃被竄誅 尙忍言哉 世之遊談之士 或疑其太驟太銳 爲賢者病之 或言君子可隱 不出世 此恐未當然 向之群賢 公正賢良 督出薄試 倡明斯道 牖開後學 人至于今稱之 苟能使致澤之化 久浹洽 則庶幾三代之盛矣 噫彼小人 工於謀利 巧於讒譖 毒害我忠良 自甘千載筆鉞之誅 其賢邪之分 如大冬霜雪卉木凋落 而松柏之節愈自青青也 倘使賢者 向晦入冥 永矢邱園 不恩焚溺 何賢之有哉 若值顯治之君 延賢任政

則吾以兼善之道 經理時政 赫然煥然 踏斯民於春培玉燭矣 是以孔孟之聖 猶思得君行道 但奸慝沮敗 不遇不濟 其在消長之幾 復何爲者 士生斯世 隱而尊德性 道問學 在林樊囿夕然自樂 顯而以紳笏立朝 思堯舜君民 措國勢於泰磐 臨大節 不可奪 處阨窮 不悶 遭讒罔 不怨尤 至死不變其素履 生爲萬民望 沒爲百世師 是之謂君子 不必以成敗得失論 抑有命焉 蓋四賢初以莘耕渭釣之志 獨善其身 終老偕隱 而他日禍亂之作 在義利之辨 不在隱顯之異 則其跡雖不同 而道則同也 甲子春 諸先生之遺孫 同謀鳩財 重修古亭 趙文正之俎豆院衣履葬 又在同郡 其慕尤甚 趙國衡 李麟珪 主其事 役訖於丙寅春 亭凡四間 田數頃 依舊 是四隱亭 後之登斯亭者 宜式其先賢行義于此

歲舍柔兆攝提格癸亥之月晦日己亥 通政大夫行奉常司副提調兼禮院掌禮復州李容九記

後學東來鄭榮詔謹書

# 地名由來

정 양 화

## 「學日」

보통 하일이라고 발음하며 고초골(꼬추골)과 원삼면 학일리를 이루고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약 400년 전에는 鶴日이라고 해서 학[鶴]字를 쓰다다 3학사의 한분인 오달제선생이 출생하신 이후로 學日이라고 배울[學]字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용인군읍지」(고종 10년 발행)를 보면 모두 學日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현재의 표기와 일치하고 있으나 이보다 앞서는 「호구총수」(정조 13년 : 1789)에는 鶴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본래의 鶴一이 오달제선생과의 인연으로 學日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마을사람들의 구전이 옳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오달제선생 이후에도 鶴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훨씬 뒤에 學日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 「무네미고개」

용인에서 송전으로 가면 남리를 지나 용인읍과 이동면의 경계를 이루는 야트막한 고개가 나온다. 그 고개를 무네미고개라고 하는데 물이 용인쪽(한강)과 송전쪽(평택)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무네미 또는 무내미라는 말은 「물넘이」 「물이 넘어가는 곳」이라는 뜻이며 한자로는 水餘峴이라고 적는다. 峴은 야트막한 고개를 칭하며 水餘란 물이 남는다는 뜻이 된다.

용인읍의 이름이 본래 水餘面이었던 것도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포곡면과 용인읍의 경계에 있는 경안천 위의 다리가 「수포교」인 것도 용인읍이 수여면이었던 당시에 건립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언제부터 水餘峴으로 불리워졌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水餘面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때 현존하는 「여지도서」(영조 36년 1760)나 「호구총수」로 보아 상당히 오래 전 부터였다고 믿어진다.

물이 넘는다는 뜻을 가진 고개는 우리 나라에서 가끔 볼 수 있으며 水餘峴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石潭」

마평리 신점에서 운학리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석담이란 마을이 있다.

마을사람들은 「돌무테기」 「돌무대기」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한자로는 石潭이라고 적는다. 이 이름은 그곳에 있는 돌무지무덤(積石塚)에서 유래된 것이 틀림없으며 원형은 많이 훼손되었으나 현재에도 일부가 남아있으며 본래는 장방형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지명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 군내에도 모현면 갈담리에 같은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돌땀이」 「돌담」 등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이는 「돌로된 담」의 뜻으로 마평리 석담과 같은 유형이라 하겠다. 또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규모의 돌무지무덤이 있었으나 완전히 훼손되어 현재에는 흔적도 없음은 아쉬운 일이다.





**용인군 체육진흥기금으로 대호산업(주)  
김 정길 사장 1천만원 기탁**

지난 6월 10일에 열린 용인군체육진흥간담회석상에서 대호산업(주) 김정길 사장은 용인군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일금일천만원을 기탁하였다.

김사장은 체육진흥뿐만 아니라 평소 불우이웃돕기, 경노잔치, 청소년선도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항상 직접 간접으로 뒷바침하시는 말없는 숨은 봉사자 이시다.

**<문화원 동정>**

**한국화 전시회(3월 28 ~ 4월 2일간)**

본 용인 문화원에서는 군민의 예능방면과 예술은 사랑하는 심적능력을 다양 화시킴을 주목적으로 삼고 花雲堂 朴鍾勇 한국화가를 초빙하여 한국화 전시회를 열어 성황리에 마쳤다.

**제 1 회 용구문화제(1986. 6. 13-6. 14)**

본 문화원에서는 향토문화 창달의 일환으로 고유민속의 날인 단오날을 기하여 전통민속 문화제행사를 개최하여 애향심 고취와 군민의 화합분위기 조성 과 전통풍속놀이를 재현 전승시켜 향토애를 돈독히 하였다.

이 행사는 앞으로 년례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사발통문>:\*\*\*\*\*

<인사동정>

· 白岩單位農業協同組合 尹奎敦組合長은 1986年 4月 11日字에 6代組合長으로 再選되어 初代부터 6代組合長을 역임. 1977年度 5月 大統領表彰을 받은바 있는 尹組合長은 恒常 農民組合員과 더부러사는 農協人像으로 農家所得增大 事業에 이바지하겠다는 一聲

· 慕賢單位農業協同組合 鄭春永組合長은 1986年 4月 11日字에 6代組合者으로 再選 鄭組合長은 農事를 直接自耕하면서 組合員의 營農指導에 앞장서는 示範農家로서 항상 組合員으로부터 重點을 두겠다고 밝힘

· 龍內單位農業協同組合 組合長柳鴻錫氏 순직으로 其間 공석중이었던 龍內單位組合長으로 1986年 6月 5日字에 姜玗熙氏가 6代組合長으로 취임 하였음. 취임사로 組合員이 신뢰하는 農協으로 育成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각 기관 및 기업체 인사동정은 다음과 같다.

인 사 동 정

구분 기관명	성 명	취 임 년 도	재 직 기 간	사임·취임사유
라이온스 (회장)	(전) 김 용덕	1985년 7월	1985년 7월 1986년 6월 30일	임기 만료
	(후) 김 한덕	1986년 7월		신임
한국전력 공 사 (소장)	(전) 백 삼선	1985년 4월	1985년 4월 - 1986년 4월	금번 인사이동
	(후) 김 영식	1986년 4월		취임
전 신 전 화 국 (국장)	(전) 박 봉서	1983년 1월	1983년 1월 1985년 4월 12일	금번 인사이동
	(후) 조 철현	1985년 4월		발령
경 방 (공장장)	(전) 최병필	1981년 3월	1981년 3월 1986년 6월	인사이동
	(후) 김 학봉	1986년 6월		발령

구분 기관명	성명	취임년도	재직기간	사임·취임사유
전매청 (서장)	(전) 이한구	1980년 9월	1980년 9월 1986년 4월 30일	정년 퇴임
	(후) 오상섭	1986년 5월		발령
녹십자 (공장장)	(전) 김배원	1980년 4월	1980년 4월 1986년 6월초	금번 인사이동
	(후) 강기진	1986년 4월		발령
용인여자 고등학교 (교장)	(전) 홍기순	1984년 9월	1984년 9월 1986년 5월 5일	순직
	(후) 김중수	1986년 6월		취임
용인등기 소(소장)	(전) 최영범	1985년 2월	1985년 2월 1986년 6월 30일	인사이동
	(후) 조정기	1986년 7월		발령

## — 문화원 인사 —

그동안 수고하시던 박민웅 사무국장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임하고 농협군지부에서 봉직하시다 정년퇴임한 이응준씨께서 후임으로 사무국장에 취임했습니다.

## ═══════════ 국토통일 대행진 ═══════════

지난 5월 3일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 용인군협의회에서 주최하여 통일을 기원하는 대행진이 있었다.

박계민 용인군수와 각급기관장을 비롯한 약 3000명이 참가한 이번 대행진은 통일을 간절히 소망하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참가했는데 통일탑에서 출발하여 자연농원 정문 주차장까지 장장 11.4 km의 거리를 질서정연하게 행진했다.

오전 10시에 통일광장에서 간단한 기념식이 있은후 이어 행진이 시작되어 1 km의 행열이 이루어졌으며 통일을 기원하는 행열은 자연농원에 13 시경에 도착하여 통일결의문을 채택한 뒤에 해산했다.

### 새세대 육영회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심장환자의 수술과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심장재단의 대행기관인 새세대육영회 용인지회는 지난 3월 11일 용인문화원 강당에서 심장병환자 돕기 자선회를 개최하여 약 500 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였다.

특히 박치과의원 원장 박영국씨는 단독으로 100 만원을 기탁하여 포곡면 삼계리에 거주하는 김초자 환자의 수술비 일체를 부담하여 수술이 완전히 성공해서 건강이 회복되었다.

이곳 용인에서는 박 원장의 고마운 성의에 대하여 칭송이 자자하다.

### 龍門會 소식

용인군 출신 대학생들의 모임인 龍門會(會長 李容雨)에서는 1986년의 사업으로서 5월 17일 龍門會誌인 “龍文”을 발간하면서 용인文化院 강당에서 기념식을 갖었다.

地方有志분들과 회원 약 70 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출한 기념식이 거행됐으며 경향각지의 龍仁出身人士들의 많은 觀心과 協助를 얻어 出版되었고 健全한 社會人으로서 발돋움하는 學生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어야 될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다.

### 경노효친 잔치

지난 5월 12일 용인읍을 비롯한 용인관내 각 읍면에서는 경노효친사상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경노잔치를 열었다. 부녀회의 정성어린 음식작만으로 대접받는 노인들은 고마운 성의에 흐뭇해 하였다.

지난 5월 13일 민정당 부녀부에서 용인관내 불우한 노인들을 위하여 경노잔치를 베풀었다. 이 자리에는 민정당 제 7지구당 위원장 정동성위원장을 비롯 용인군수 경찰서장이 참석하여 노인들을 위로하였고 부녀회의 정성어린 음식 솜씨에 모두가 포식하여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경노효친사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도있게 표현해준 정위원장과 각급기

관장들의 성의에 많은 군민이 갈채를 보냈고 대접받은 불우노인들 역시 만족하게 생각하고 칭찬이 자자했다.

## ❁❁❁❁ 제 4 회 영지회 꽃꽂이 작품전 ❁❁❁❁

오뉴월 불벌속에서 6月 20 ~ 21日 양일간 영지회 네번째 꽃꽂이 잔치가 반가움과 이취움속에 있었다. 하나 하나의 작품속에 혼을 풀어놓은 듯 꽃을 꽂는 이들이나 꽃힌 꽃들이 모두가 하나되어 어울어져 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한껏 펼친 화려한 꽃잔치 이름 그대로였다. 항상 귀 기울여 듣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조화시켜서 더 더욱 완전한 아름다움을 창조 하려는 오 민근 사범과 함께한 여러 영지회 회원들의 보이고 싶은 소망이 이루어진 날이며 그 소망이 보는이들로 하여금 경이를 낳게 하고 용인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날이기도 하다. 출품하고 준비한 영지회 꽃꽂이 모 든 이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더더욱 발전하는 영지회가 되길 바라며 자주 이런 기회가 있길 바라는 결코 나만의 욕심이 아닐 것이다.

## 吳道一 肖像

오도일(吳道一) 先生의 자(字)는 관지(貫之)요 본관(本貫)은 海州이며 서파(西坡)는 號이다. 仁祖 23年(1645年) 正月 8 日에 종친부전집(宗親府典籤)을 지낸 오달천(吳達天)과 한양조씨(漢陽趙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顯宗 14年(1673年)文科에 급제 지평(持平)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한 때 파면되었다가 승지(承旨)가 되고 주청부사(奏請副使)로 명(明) 나라에 다녀와서 江原道 觀察使, 이어서 都承旨가 되었다. 당쟁 때문에 변동이 있었으나, 대사성(大司成) 경기도 觀察使,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대제학(大提學) 이조(李曹) 및 공조참판(工曹參判)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등을 역임하고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이르렀다가 민언량(閔彦良)의 옥사(獄事: 張禧嬪의 모함사건)에 관련되어 장성(長城)으로 귀양가서 돌아가셨다.

吳道一 先生은 천자(天資)가 총명영오(聰明顯悟)하여 말을 배우기도 전에 벌써 글자를 해득(解得)하고, 四, 五才에 詩를 지어서 사람들을 경탄(驚嘆)케 하여 어릴때부터 文章을 世上에 크게 떨쳤으며 평생에 술을 좋아하였으므로 숙종이 간곡히 타일러서 한때 술을 끊은 일이 있었다.

吳道一 초상은 상당히 낮은 상태로써 배접된 천이 헤지고 있으나 다행히 초상은 毀損되지 않았고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이나 특이한 점은 공수(拱手)의 취세와 양발의 놓임새, 교자(交子)의 등걸이 등이 좌우 대칭적으로 구도를 나타내어 정면필법(正面筆法)으로 구사되었으나 안면만은 좌안 7분면(左顔七分面)으로 포치(布置) 했다는 점이 관내에 소장되고 있는 여타 초상의 유형과는 색다른 면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李應燮)

## 원 고 모 집

본 문화원에서 계간지로 발간되는 「용구문화」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 요령에 의거 군민 여러분의 원고를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주옥같은 글을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속놀이, 문화재 등 발굴기(원고매수 자유)
- 애향심 고취에 관한 산문(원고 12매)
-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논문
- 각 기관 및 학교, 일반사회단체 등의 동정소식(원고매수 자유)
- 수필, 시, 콩트 등

보내주실 곳 :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33-61  
용인문화원 <<전화>> 2-2033 번



## 편집후기

郡民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龍丘文化를 7번째 펴내게 되었다. 거듭할수록 알차게 꾸며야 할터인데 이번에는 傳統文化의 再照明과 鄉土文化의 暢達을 위하여 개최한 “제 1회 龍丘文化祭” 行事 관계로 未洽한 點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端午節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號에는 민속놀이, “地神밧기” 編을 더듬고 言論界의 선각자이신 “柳瑾 선생의 逸話”에 대하여 특집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넓은 마당을 마련하여 알찬 龍丘文化가 될 것을 다짐하오며…… 竣



---

---

### 용 구 문 화 제 7 호

1986년 6월 25일 인쇄

1986년 6월 30일 발행

발행처 : 용인문화원

발행인 : 김 정 근

편집인 : 이 용 준

인쇄처 : 흥익문화인쇄사 전 화 : 274-6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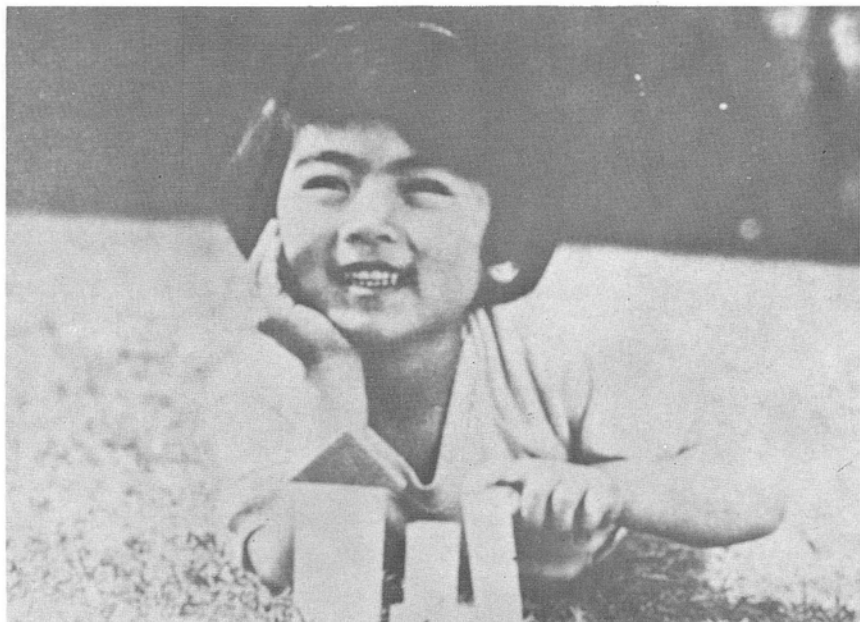
---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음.

비 매 품



# “ 커가는 꿈 밝은 내일 ”



상업은행은 세계속의 은행으로서, 꿈을 키워주는 반려자로서,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고, 보다 바른 서비스로,  
더욱 정성껏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 한아름통장

- 통장하나로 여러가지 예금을 하실 수 있고 필요시 대출도 해드릴뿐만 아니라, ON-LINE을 이용한 각종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는 저희 은행 특유의 종합통장입니다.

## 가계금전신탁

- 전국 어디서나 입출이 자유롭고 고율의 실적배당이 보장됩니다.
- 거래대상: 개인 1인1구좌
- 거래방식: 통장식 거래
- 신탁한도: 2,000만원
- 신탁기간: 1년(단 2회에 한하여 자동연장됨)

## 자유저축예금

- 언제나 자유로이 예금·인출하실 수 있으며, 장기예치시에는 정기예금보다 많은 이자를 드립니다.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서 1인1계좌
- 예치한도: 2천만원

## 가계우대정기적금

- 일반적금보다 연 3.0%의 특별금리를 더 드리는 3년제 적금으로서, 중도해약시에도 높은 이자를 드립니다.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 계약한도: 1천만원



## 상업은행

용인지점 지점장 한 영 수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39

☎ 2 - 5 6 3 8 ~ 4 0

